



 http://csf.kiep.go.kr/	「이슈&트렌드」
	제5회 일·중 고위급 경제대화 개최와 평가
2019. 04. 19.	작성 이정은 연구원(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일본·동아시아팀)

- 2019년 4월 14일 중국 베이징에서 제5회 일·중 고위급 경제대화가 개최되었음.
 - 일·중 고위급 경제대화는 2006년 아베 총리 방중 시 창설된 양국간 비정례 고위급 회담으로, 이번 대화는 아베 2차 내각 수립 이후 2번째 회의임.
 - 일본에서는 고노 외무상(의장) 및 농림수산업성, 경제산업성, 국토교통성, 환경성, 내각부 특명담당(지방창생) 장관 등 각료단이 참석했으며, 중국에서는 왕 외교부장(의장) 및 상무부, 공업정보화부, 생태환경부, 농업농촌부 장관 등이 참석함.

- 2012년 일·중 외교관계 악화로 고위급 경제대화를 포함한 일체의 정부 간 교류가 중단되었으나 2014년부터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정부 간 대화가 재개되었으며, 2018년에 8년 만에 제4회 고위급 경제대화가 개최됨.
 - 2012년 일본의 센카쿠 열도·다오위다오 국유화를 계기로 중국 내 반일감정 및 반일 시위가 격화되었으며 일시적으로 일·중 정부 간 일체의 협의가 정지되었음.
 - 2014년 11월 일·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관계가 ‘최악 국면’에서 회복하기 시작했으며, 2018년 미중 통상마찰에 압박을 느낀 중국이 일·중 고위급 경제대화의 재개를 요청함.
 - 미중 무역전쟁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주변외교를 강화하고 대체시장을 찾으려고 하는 양국의 의도가 부합하여 2018년 4월 제5회 일·중 고위급 경제대화가 개최되었음.

표 1. 일중 경제 대화 연혁

#	일시	개최지	의장	주요 내용 요약
1	2007.12.1	베이징	日 다카무라 외무상 中 쩡페이옌 부총리	· 기후변화·환경보호·에너지, 무역투자(지재권, 무역 이슈, 고기술협력, 수출통제, SME), 지역 및 국제사회 협력문제 논의
2	2009.6.7	도쿄	日 나카소네 외무상 中 왕치산 부총리	· 무역투자: 물류대화채널, 금융, 지재권, 정보통신, 식품 안전, 재난방지 · 에너지·환경분야, 지역 및 국제사회협력문제 논의
3	2010.8.28	베이징	日 오카다 외무상 中 왕치산 부총리	· 녹색경제, 산업협력, 금융협력, 비즈니스환경개선, 농업 분야 협력방안 논의 · 지역 및 국제사회협력문제 논의(WTO, 한중일투자협정문 협상문제, APEC 등)

4	2018.4.16	도쿄	日고노 다로 외무상 中왕이 외교부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에너지절약·환경, 과학기술·이노베이션, 첨단제조업, 재정·금융, 의료·간호, 제3국 협력 등 분야에서의 산업협력 검토, 농·식품 교역 촉진 및 위생검역 협력 강화 등에 합의 · 한중일 FTA 및 RCEP 협상 가속화, WTO 다자무역체제 강화 등
---	-----------	----	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주: 지금까지 일본은 외무장관이, 중국은 국무원 부총리가 의장을 맡았으며, 4회와 5회에는 고노 다로 외무상과 왕이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(부총리급)이 의장을 맡음.

자료: 이보람(2018), 「중·일 고위급경제대화 8년 만에 재개」, 2018년 지역연구동향세미나(제8호) 및 外務省 사이트
참고(<https://www.mofa.go.jp/mofaj/area/china/visit/index.html>).

□ 이번 대화에서 양국은 △일본산 소고기의 수입규제 해제 △일본 대표단의 일대일로 포럼 참여 △6월 시진핑 주석의 방일 등에 대한 합의를 이루었으나, △지식재산권 및 화웨이 5G 규제 등에 대하여 의견이 엇갈림.

- 일본산 소고기 등 축산물의 대중 수출 해금을 위한 중요한 단계가 될 「동물위생검역협정」 체결에 실질적으로 합의.
- 중국은 2001년 일본에서 광우병(BSE)이 발생한 이후 일본산 소고기 수입을 금지해 왔음.
- 2019년 4월 26~27일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제2회 일대일로 포럼에 일본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합의했으며, 2019년 6월 오사카에서 개최되는 G20 회의 참석 차 시진핑 주석이 일본을 방문하기로 함.
- 일본측은 중국에 지식재산권 보호 및 첨단기술의 강제 이전 방지를 요청했으며 중국측은 5G 입찰에서 특정 중국기업을 배제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함.
- 일본은 중국에 진출한 일본기업이 첨단기술을 공개하도록 강요받는 사례가 많으며, 일본 영화, 애니메이션 등 문화콘텐츠가 저작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유통되는 상황을 지적하며 지적재산의 보호 강화를 요청하였음.¹⁾
- 미국의 요청으로 일본정부가 도입한 정부조달관련지침(2018년 12월)에서 통신회신 및 단말기, 서버 등 9개 항목에 대해 안전보장상 위협이 있는 경우 정부조달을 금지함.²⁾
- 정부조달의 제한 외에도 일본정부는 세계 각국의 통신기기 안전 대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통신, 금융, 항공 등 14개 중요 인프라 분야에 대한 「사이버 대책에 관한 안전기준의 책정지침」을 연내에 개정할 방침임.³⁾

1) 日本経済新聞(2019. 4. 3.), 「中国に知財保護を要請、日中初のイノベーション対話、習氏来日への地ならしも」.
2) 2018년 8월 미 의회는 미국 행정기관이 일부 안보 우려가 존재한다고 판단되는 중국기업(화웨이, ZTE 등)의 통신장비를 조달하는 것을 금지하는 2019년도 국방수권법(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)을 통과시켰으며, 이후 미 정부는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과 EU에 비슷한 규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함.
3) 일본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화웨이 등 안전보장 상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중국 통신장비의 배제를 민간 기업으로 확대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해석될 수 있음. 時事通信(2019.1.17.), 「サイバー安全指針改定へ＝中国機器、民間からも排除－政府」; 日本経済新聞(2019. 4. 16), 「5G規制、日中の火種に、ハイレベル経済対話、王毅氏「なぜファーウェイ排除」、日本、各国対応調査へ」.

표 2. 제5회 일중 고위급 경제대화의 주요 내용(정부보도발표)

분야	주요 내용
거시경제정책	- 경제분야의 지역협력·다자무역체제 협력의 중요성에 대하여 논의
양국간 경제협력 및 교류	- 무역·투자 추진 및 사업 환경 개선에 대해 논의 · 강제기술이전, 지식재산권 보호, 데이터 취급, 산업보조금 등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일본의 문제의식을 전달 · 20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 도입된 일본산 농수산물에 대한 수입규제의 철폐·완화 요청 · 일본산 쇠고기 등의 중국 수출 해금을 위한 동물위생및검역협정의 실질적 합의 도출, 조기 체결을 위해 협력할 것을 확인 · 일중 금융협력 및 에너지절약·환경 분야의 협력 강화, 관광 교류 촉진 등
제3국 시장 협력	- 작년 10월에 서명한 일중 민간기업·단체 간의 협력각서(52건)의 후속조치를 포함하여 제3국 시장 협력을 위한 기업간 협력을 구체화
혁신 협력 대화	- 제1회 일중 혁신 협력대화(2019년 4월 2일, 베이징) 개최를 환영 - 일본은 지적재산권 보호 조치 강화와 첨단기술의 강제이전 방지를 중국에 요청 - 연료전지 차량에 활용하는 수소에너지 등 분야에서 협력 강화 방안 논의 - 중국은 3월 전인대에서 통과된 외국인투자법 등을 거론하며 지식재산권 보호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
지역·국제사회	- G20 오사카 정상회의, RCEP의 연내 타결, 한중일 FTA 협상 가속화, WTO 개혁의 진전을 위한 협력 논의 - 기후변화, 해양 쓰레기 등 글로벌 과제의 해결에 대해 의견 교환

자료: 外務省(2019), 「第5回日中ハイレベル経済対話の開催(結果)」(4月14日).

□ 이번 회의를 통해 일·중 관계가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실질적인 성과는 제한적이었다고 평가됨.

- 고노 외무상은 이번 회의에서 일·중관계가 정상화 되었다고 언급.
- 특히 일본은 국회 개회중임에도 불구하고 경산성 장관 등 6명의 각료를 포함한 대표단이 방중하여 일본의 중국에 대한 관심을 보여줌.
- 대화의 분위기는 매우 우호적이었던 반면 첨단기술 및 5G 규제 등 주요 분야에서 입장이 대립되어 논의의 진전이 어려웠음.⁴⁾
- 양국은 대미 통상압력에 대비하기 위해 협력을 확대하고자 하나, 일본으로서는 핵심 동맹국인 미국과 공공연하게 대립되는 정책을 펼치기 어려움.
- 현재 막바지에 다다른 미중 무역협상과 2019년 4월 개시한 미일 물품무역협정(TAG) 협상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. CSF

4) 日本経済新聞電子版(2019. 4. 17), 「読めぬトランプ圧力、日中対話は「前向きでも中身薄く」.